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1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에서 네 번째)과 함께 손가락 하트를 그리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백악관 SNS

바이든 만난 BTS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평등의 시작”

“다름을 인정하는 것부터 평등이 시작된다.”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아시아인 혐오범죄 근절 의지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과시했다.

방탄소년단은 ‘아시아·하와이 원주민·태평양 제도 주민(AANHPI) 유산의 달’ 마지막 날인 5월31일(미국시간·한국 시간 6월1일)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아시아계 혐오범죄 및 차별 문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미국 애틀랜타에서 네 명의 한인 여성을 포함한 8명이 희생된 총격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내는 등 그동안 인종 혐오 범죄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날 면담에 앞서 방탄소년단은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

인과 함께 브리핑룸을 찾아 관련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이들은 “나와 다르다고 잘못된 일이 아니다. 옳고 그름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평등은 시작된다”고 밝혔다.

브리핑룸에서 리더 RM은 영어로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 범죄와 아시아계 포용과 다양성 등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백악관에 초대받아 큰 영광이다”고 인사했다. 지민은 “최근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에 놀라고 마음이 좋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근절에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를 빌어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사람들은 여러분(BTS)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모든 이들에게 선한 것”이라며 “이는 여러분이 가진 훌륭한 재능 때문이

아시아인 혐오범죄 근절 위해 의미있는 목소리
바이든 대통령 “BTS메시지 모든이에 선한 것”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하는 메시지 때문”이라고 방탄소년단의 영향력과 파급력을 기대했다. 이어 “증오는 단지 숨어 버릴 뿐이다. 선한 사람이 증오에 대해 이야기하고, 얼마나 나쁜 것인지 이야기를 하면 증오는 점차 줄어들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환담을 마친 후 대통령직무실(오벌오피스)에서 멤버들과 손가락 하트를 그리며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글로벌 스타의 방문에 백악관 안팎에서는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밖에서는 수백여 팬들이 “BTS!”를 연호하며 아시아계 혐오범죄 근절 지지에 뜻을 모았다. CNN과 영국 BBC 등 외신들도 “BTS가 백악관에 ‘케이(K) 웨이브’를 몰고 왔다” “BTS의 연설은 그야말로 엄청났다”고 보도하며 관심을 드러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1위
ABC 공인 유료·발행부수
4년 연속 1위

스포츠동아

2022년 6월 2일 목요일
www.sportsdonga.com

벤투호, 오늘 오후 8시 FIFA 랭킹 1위 브라질과 A매치

‘KING’ 손흥민, 네이마르 삼바춤을 저지하라



상대 전적 1승 5패 한국이 밀리지만
최근 활약, EPL 득점왕 손흥민 앞서
월드컵 16강 진출엔 브라질 만날수도
네이마르 어제 훈련 도중 부상 ‘변수’

‘손세이셔널’ 손흥민(30·토트넘)이 당대 최고의 슈퍼스타를 만났다. 브라질의 1992년생 동갑내기 네이마르(파리 생제르맹·PSG)와 격돌한다.

파울루 벤투 감독(포르투갈)이 이끄는 축구국가대표팀은 2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위 브라질과 통산 7번째 A매치 맞대결을 펼친다. 상대전적에선 1승5패로 한국(FIFA 랭킹 29위)이 크게 밀리지만 승부는 알 수 없다.

한국의 선봉에는 손흥민이 선다. A매치 98경기(31골)에 출전한 대표팀 주장은 페이스가 아주 좋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2021~2022시즌 23골을 터트려 이집트 골잡이 모하메드 살라(29·리버풀)와 함께 공동으로 ‘골든부트(득점상)’를 수상했다. 유럽 5대 리그(잉글랜드·독일·스페인·이탈리아·프랑스)에서 아시아선수 득점왕 등극은 이번이 처음이다.

EPL 무대를 넘어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군 놀라운 기세를 손흥민은 6월 A매치 4연전에 쏟아붓는다는 의지다. 한국은 브라질전을 마친 뒤에도 칠레(6일·대전)~파라과이(10일·수원)~이집트(14일·서울)와 차례로 격돌한다.

11월 개막할 2022카타르월드컵 본선을 향한 전초전인 만큼 대표팀은 브라질전에서도 총력전을 선언했

손흥민 vs 네이마르		
손흥민	구분	네이마르
1992. 7. 8	생년월일	1992. 2. 5
183cm·78kg	키·몸무게	175cm·68kg
토트넘 (잉글랜드)	소속팀	PSG (프랑스)
23골·7도움	21~22시즌 리그 기록	13골·6도움
98회·31골	A매치 기록	117회·71골
8000만 유로	시장가치	7500만 유로

※ 시장가치는 21년 12월 트랜스퍼마크트 기준

다. 실제로 대회 일정을 보면 한국과 브라질은 조별리그 이후 16강에서 마주칠 가능성이 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고의 자리에 우뚝 선 손흥민의 역할이 몹시 중요하다. 지난달 30일 경기도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시작된 대표팀의 첫 훈련에 앞서 그는 “브라질은 훌륭한 팀이나 우리도 보일 수 있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삼바군단’의 핵심은 역시 네이마르다. 지난달 26일부터 순차 입국한 브라질대표팀은 그간의 공개 훈련을 통해 네이마르의 출격을 예고했다. 브라질 지지 감독은 팀 훈련에서 네이마르에게 2선 중앙부터 윙 포워드, 전방을 두루 뛰게 하며 최적의 포지션을 고민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 네이마르는 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된 최종 훈련 막판 미니게임 도중 동료와 충돌해 오른 발목을 다쳤다.

▶ 2면으로 이어집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EPL 지존’ 손흥민(왼쪽)과 ‘슈퍼스타’ 네이마르의 대결은 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릴 한국-브라질의 A매치를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요소다. 다만 최근의 기세를 보면 손흥민이 조금 앞선다는 평가다. 지난달 30일 파주 NFC에서 진행된 오픈 트레이닝 도중 미소 짓는 손흥민, 고양충합운동장에서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몸을 푸는 네이마르. 파주 | 김종원 기자 won@donga.com·고양 | 주현희 기자 teth1147@donga.com

CJ WELLCARE

속편하게 양배추 믿고먹는 CJ제일제당

저온박막농축기술로 맛과 향이 깔끔한
CJ 한뿌리 양배추&브로콜리 골드

•식품유형 : 과채음료 •원산지 : 양배추작금농축액(양배추·국산), 사과농축액(사과·국산), 브로콜리농축액(브로콜리·국산), 산사나무열매농축액, 매실농축액



01

제주산 양배추와
100%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CJ제일제당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는 국내산 100% 원료만을 사용했으며, 자연의 해풍을 받고 자란 제주산 양배추만을 사용하여 더욱 맛이 좋고 안심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03

양배추와 함께 속을 위한
브로콜리, 산사나무 열매를
담았습니다.

예로부터 속을 위한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던 브로콜리, 산사나무열매를 함께 배합하여 CJ연구소만의 노하우를 더했습니다.

02

CJ 저온박막농축기술을
건강함에 적용하여 양배추만의
비타민U 함유량을 높였습니다.

저온에서 열의 접촉은 최소화하며 농축하는 기술을 통해, 양배추 특유의 비린 맛은 없애고 편안한 속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U를 최대한 살렸습니다.

04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양배추의 맛을
잡았습니다.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최고의 배합을 찾아내어 맛과 향이 매우 깔끔하고 먹어보면 다릅니다.

특별이벤트

▶ 금액대별 푸짐한 사은품 증정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091-9988